

## 동해안투자밸류업으로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

경북, 제1차 투자전략회의 개최  
APEC 경주 개최 브랜딩 기회로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등  
정책특구 확대와 규제완화 속도  
법인세·산단 임대료 감면 등 제공  
대규모 호텔 리조트 유치 '집중'  
티메프 피해 포함 기업지원 6천억  
민생 안정 기본틀로 물가까지 확

경북도는 24일 제1차 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동해안투자밸류업 추진방안'과 '하반기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투자전략회의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지난 6월 부임한 이후 새롭게 만든 회의이다.

민선8기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인 '기업을 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유관부서가 함께하고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입체적인 지역발전정책을 설계하는 범실국 협의회체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APEC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도약에서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산업의 글로벌화까지 경제 전 영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린 만큼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투자전략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모아 경북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부서 실국장들과 김재수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제·문화 관련 출자출연기관장들도 함께했다.

우선 동해안투자밸류업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추진방안은 동해안의 강점인 에너지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5대 전략 10대 과제로 꾸려졌다.

이때는 국가산단유치와 동해중부선 개통 그리고 APEC 정상회의 등의 성

과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며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정책특구 확대와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경산, 포항, 영천 등에 국한된 경제자유구역을 동해안까지 확대해 외투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환동해 글로벌 에너지관광벨트 특별법' 등의 입법도 준비해 법인세와 산단 임대료 감면 등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력주산지인 동해안의 장점을 살린 '에너지특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다.

산업정책들과 더불어 관광분야 투자 촉진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경북도는 올해 말 개통되는 동해중부선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역세권을 관광특구나 관광지로 개발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 정책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호텔 리조트 유치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와 기업혁신파크 등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이 있는 정책특구들도 관광투자에 적용해 투자기업들을 모으는 전략도 발표했다.

아울러 '복합구역'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규제완화를 통한 복합개발방식으로서 민간의 제안을 받아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용적률, 건폐율과 같은 규제 등을 심의, 완화해 주는 것이다.

현재 동해안 일원은 대부분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구역이 설정돼 있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최대 100%까지 규제를 받고 있어 1만 평 기준으로 4층 정도 건물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간에서는 복합구역으로 지정되고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준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민간투자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시·군과 함께 민간이 제안하는 투자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지원할 민간협력 투자협의체를 사업단위로 가동하고 규제완화와 투자펀드 지원, 정책특구 지정 등 입체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오는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경북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라면서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특구 지원 등으로 투자상품으로서 동해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일자리와 사람이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 '하반기 내수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 내수활성화 대책은 하반기 3% 조반 수준의 물가상승 전망에 대비해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내수 부양 지원책, 국내 소비기반 강화, 외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그리고 물가안정 관리 정책들을 포함했다.

내수부양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할인행사와 하반기 18개의 지역축제의 차질없는 개최를 통해 외부소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국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마케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중소상공인 대책은 티몬, 위메프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포함한 약 6000억원의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집행하고 전통시장 디지털화와 지역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촉활동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인상 최소화를 위해 가격동향 감시를 강화하며 도시가스, 상수도 등 6종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을 공개한다.

또한 경제통상국을 중심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민생은 기본중에 기본이다"라며 "물가 안정을 기반으로 지역축제와 관광객유치 등으로 소비를 진작시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오늘 발표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화공특강 300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친필 서명이 담긴 요약집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李 철학 담긴 '화공특강' 배움의 산실 굳건

7년 차 300회 달성, 유튜브도 인기  
이명박 전 대통령 동참 축하 전례

경북도는 24일 화공 굿모닝 특강 300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역대 강사와 도의회, 공공기관장,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청 이전 후 처음으로 신청사를 방문해 기념 축사와 강연집 발간 행사에 참여, '화공 굿모닝 특강 300회 개최 기념'이라는 글귀를 담은 기념식수도 진행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화공특강은 이 지사가 민선7기 취임 후인 지난 2018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시대적 흐름을 주도해 지방 성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부터 배우고 변화야 한다는 생각으로 개설한 새벽 공부 모임으로 햇수로 7년 만에 300회를 달성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부 정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300회 동안 현장 강연에 참석한 공무원만 누적 3만1000명이며 2021년부터 시작한 유튜브 생방송 시청자도 1만6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시·도민에게도 인기 있는 배움의 장으로 평가받

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북은 예로부터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인재의 산실이었고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배움으로 기반을 닦고 준비한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경북이 중심이 돼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것"이라며 응원의 뜻을 전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더 깊고 넓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 공무원과 국민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화공, 세계 속의 화공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감사와 의지의 뜻을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대구 시내버스 전면 개편' 신규 산단 접근성 높인다

시, 10년 만 도시여건 변화 따른 4차 개편 '노선체계 초안' 확정  
노선수 늘었으나 운행수는 줄어  
수요 공급 최적화·효율화 추진

대구시는 지난 2015년 시내버스 개편 후 10년 만에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선체계 개편 초안을 확정하고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외부전문가 및 관련업계, 기관이 참석하는 용역 중간보고회를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대중교통 정책은 그간 도시철도 1-3호선 개통과 함께 대규모 노선체계 개편을 시행해 왔다.

이번 4차 개편은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대규모 주택단지, 신규산단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개편이다.

대구시의 노선 현황을 살펴보면 1차 개편(1998년 95개 노선, 1719대) 후 현재까지 시내버스 노선수(122개)는 27개 증가했으나 운행대수(1566대)는 153대 감소해 수요·공급 최적화, 정류소, 배차간격 등 노선 효율화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10월 대구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에 착수해 그간 교통카드 연관 빅데이터(1억8369만 7731건)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거쳐 도시철도 중복노선 조정, 굴곡·장거리 노선 개선, 신규 산단·주택 단지에 증가 없이 교통접근성 개선 등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 노선개편 초안을 마련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대구시는 물론,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 버스노동조합, 시민단체, 학계, 연구기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개편방향, 사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의회 및 주민설명회(10월), 용역 최종보고회 및 개편안 확정(12월), 홍보 및 시행준비(2025년 1월~2월) 등을 거쳐 내년 2월 말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허준석 시 교통국장은 "지역의 대중교통 변화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에서 증가 없는 노선 개편을 통해 준공영제 운영비용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서비스 지역 확대, 배차 간격, 중복도 및 굴곡도 등을 개선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www.bioexpo.or.kr

# K-바이오, 내일의 희망

## 2024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

GYEONGBUK BIO INDUSTRY EXPO 2024

### 9.26.(목) ~ 9.28.(토) 3일간

### 안동체육관·안동문화예술의전당

주최: 경상북도, 안동시 | 주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협력: SK 바이오사이언스, 유한건강생활, DAESANG, ThermoFisher Scientific, eppendorf  
참여: POSTECH, GIC, DYETEC, 한국수력원자력

# 경북·국힘 원팀, 국비 확보 전략 '초읽기'... APEC·저출생에 방점

예산정책협의회 대응방안 협의 APEC 기념공원·기념관 건립 등 관련 사업 12건 2035억원 건의 저출생 극복 융합돌봄특구 지정 양자기술·AI글로벌 초격차 확보 국토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강조



경북도는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는 2025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지원방안을 상세히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북도와 대구시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구자근 예결위 간사와 임종득, 조지연 예결위원,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

원 등이 참석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면서 "민선8기 전반기에 특화단지, 국가산단 등 전국 최대 정책특구 지정을 비롯한 최근 경북도의 최대 성과는 공직자들이 발로 뛰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며 직접 챙겨준 덕분"이라며 "오는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이자 최초로 국비 12조원 돌파를 위해 경북도와 국회가 원팀이 돼 계속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경북도는 주요 정책과 국비

현안으로 APEC 특별법 국회 통과 및 국비지원, 저출생과 전쟁 상황과 정책 현안, 국가 첨단전략산업 선도프로젝트, 농업대전환과 산림·해양 혁신사업, 경북 광역 SOC 조기 구축과 기타 주요현안 사업을 건의하고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APEC 경주와 관련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국회 통과와 APEC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 숙박 시설 정비, 도로 및 도시 경관 개선 등 관련 사업 12건 2035억원을 건의했다.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저출생과 전쟁 상황과 현안 사업으로는 기존 정책과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저출생 대책 사업을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하고 돌봄 전주기를 대응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지정을 건의했다. 또 산업단지 돌봄중점형 복합문화센터(390억원),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 체계' 구축(961억원) 등 저출생 극복 선도모델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농업대전환과 산림·해양 혁신과 관

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대통령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혁신농업타운 사업을 설명하며 경북의 농업대전환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산림, 해양 분야에서도 성공의 DNA를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혁신 과수 산지유통센터(300억원), 산림 미래혁신센터(140억원), 심해 해양바이오뱅크(331억원) 등의 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분야인 양자기술과 인공지능(AI) 산업 첨단전략기술 선도 프로젝트도 건의했

다. 양자기술 성능시험환경 개발사업(490억원), 인공지능 생성형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지원센터(450억원), DX 기반 자동차부품 혁신지원(350억원) 등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미래 사업도 다수 포함했다. 국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철도 등 SOC사업 협의도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전국 광역권을 촘촘히 연결하기 위한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문경-점촌-상주-김천 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 광역철도, 철곡-군위 간 중앙고속도로 등 SOC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철우 지사는 "오늘 건의한 주요현안과 국비 사업들은 일자리, 복지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건전재정 기조인 만큼 국비 확보가 녹록하지 않겠지만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문경시의회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른 의정 펼쳐달라"

30일까지 제280회 임시회 재결을 3회 추경 1.1조, 4차 본회의 의결 의원 대표발의안·시정 질문 예정

문경시의회는 지난 23일 신현국 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에는 이날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조례안 16건(의원발의의 조례 11건 포함), 일반안건 5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3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4일, 25일 이틀간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을 대표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 35건에 대해서 김경환·황재웅·서정식·신성호·고상범·남기호·박춘남·김영숙 의원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들을 예정이다.

오는 26일 상임위원회에서 △문경감홍사와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경환 의원 대표 발의)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웅 의원 대표 발의)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 의원 대표 발의)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기호 의원 대표 발의)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 의원 대표 발의) △문경시의회 교실 단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 발의) 등 의원발의의 조례안 11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관

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 변경 동의안' 등 일반 안건 5건을 심사하고 30일 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엔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84억원이 증액된 1조1088억7000만원으로 26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개최식 직후 신성호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말 중부내륙 고속철도 KTX 개통으로 문경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맞아야 문경역에 대한 전국적 홍보, 문경역 주변 편의시설 조기 완공, 힐링도시 문경 이미지 구축 등에 대한 제안을 했고 고상범 의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북도에서 시행 중인 '햇살내지 농사 태양광 지원사업'을 문경시 농업현

대화사업에 접목시켜 농업현대화사업의 지원분야를 확대해 문경시 관내 농업인들이 농업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경길 의장은 "이번 회기에 다룰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회로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문경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덧붙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중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낭비성·선심성·중복성은 없는지 세심한 심사와 상정된 안건 심사에도 시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해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영주시의회, 중앙초와 함께 청소년의회교실

안전 놀이시설 조성 조례안 관련 실질적인 의사결정 체험 '호응'

영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중앙초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제5회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로 5회째인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에게 임시시장, 의사담당관, 의원 등의 역할을 분담해 의정 선거 및 안전 건 발표 및 찬반토론 시간을 가지며 학생들이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학생 자치 활동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교식 △일일

청소년의원 선거 △의정선거 △안전발표 및 찬반토론 △안전건표결 △취재단 △의원님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일일 청소년의원으로서 처리한 안건은 △'영주시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은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역할과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해 좋았다"라면서 "오늘 안전 건 토론에 대해 경험해 주신 의원분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경험으로 어떤 문제를 토론할 때에 잘 조율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 북부 중흥 시대 열자 북부지역 의회·장협의체 월례회 주요 현안 논의·상생 협력안 모색

상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29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장협의체'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는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체가 주최하고 상주시의회가 주관해 도내 11개 시·군의회 의장

들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북 북부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 상생 협력 발전 방안 모색, 주요 안건 및 협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심의했다. 안경숙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쁜

일정에도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주시를 방문해 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내실있는 의정협의체로 경북북부지역의 발전 및 중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라고 당부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경상투데이 캠페인

# "저출산 극복

## 경북형 새날봄

<p><b>조기퇴근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li> <li>근로자 임금 보전</li> <li>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li> </ul>	<p><b>학교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li> <li>거점형 돌봄센터 구축</li> <li>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li> <li>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li> </ul>	<p><b>심야 돌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봄 서비스</li> <li>24시 어린이집</li> <li>아픈 아이 긴급 돌봄</li> <li>24시 응급치치 편의점</li> </ul>
--	---	---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시 골프협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 경북지사 “청년 어려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참석 온라인·현장으로 고민 접수 토크콘서트서 격려 전해 호응

경북도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24일 안동시청 대동관 영남홀에서 2024년 경북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정신건강·자살 예방 사업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영상 상영, 마음 채우기 퍼포먼스, 청년 토크콘서트로 진행됐다.

부대행사는 생명 사랑 매듭 팔찌 만들기, 정신 건강검진 상담 부스 등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박성만 도의회 의장, 김

경도 시의회 의장 등 의원들 비롯해 안동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유관 기관장, 경북지역 청년, 지역주민, 정신보건·의료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서 상영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살의 위급한 순간에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영웅들의 모습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기념식 후 이어진 이철우 도지사와의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뜻밖의 위안’에서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접수된 청년들의 가치관과 고민을 듣고 공감하면서 도지사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격려와 응원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위

안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에 접수한 청년들의 가치관 조사 결과에서는 안정적인 삶과 건강, 성공과 성장, 행복과 즐거움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나의 고민으로는 일자리와 직장 내 갈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참석한 한 청년은 도지사와의 소통을 통해 뜻밖의 위안을 얻었다며 “도지사님과 직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길 줄 몰랐는데 저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했다”며 “무엇보다도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과 함께 삶의 지혜가 녹아든 지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행사로 청년의 고민을 많이 알게 됐고 청년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라며 “경북도는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생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경북도는 자살 예방을 위해 범사회적 자살 예방 환경조성, 맞춤형 자살 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매해 9월 10일로 생명의 소중함과 국가적·사회적으로 증가하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제정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수학문화관을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으로”

### 경북도교육청, 건립 현장 찾아 공사 진행·안전 관리 등 점검

경북교육청은 24일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관계자 10여명이 포함하여 있는 경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과 현장 안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학문화관 건립은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 교육으로 체험하고 즐기는 수학 교육의 활성화와 수학 탐구 경험을 제공해 생각하는 힘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025년 3월 개관 예정인 수학문화관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민에게

협·탐구·실습 중심의 수학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학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통해 체험하고 즐기는 수학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북 4개의 거점 수학체험센터와 함께 학교 및 지역과 연계한 수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수학의 대중화에 앞장설 전망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도교육청 수학문화관을 도전성과 재미가 갖춰진 안전한 수학 체험 공간으로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무한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농기원, 정보화농업 이바지 농업인 경진·전진대회 ‘성료’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사)한국정보화농업인경북도연합회 주관 ‘2024년 경북도 정보화 농업인 경진 및 전진대회’를 지난 23일, 24일 이틀간 김천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했다.

‘최강 경북정농, 최고 경북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과 도내 정보화농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우수 경영혁신 사례에 대한 정보교류, 정보화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농업인에 대한 도지사 표창 등을 비롯해 시·군 우수 농특산물 전시·홍보, 정보화 농업인 화합 한마당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스마트 스토어, 라이브 커머스, 낱표 경영,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장 경영기법 등 정보화 농업인들의 우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농특산물의 개발과 홍보를 통해 회원 상호 간의 경영·마케팅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조영숙 원장은 “사회관계망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와 소통해 새로운 농업 경영 플랫폼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화농업인경북도연합회는 지난 2003년 결성돼 현재 22개 시·군 9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블로그, SNS,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하며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도, 원자력·수소 기업 애로사항 해결 ‘집중’



### ‘관련 기업육성미트-업데이’ 진행 10개 원자력·8개 수소 기업 참석 규제·기술개발 등 심도 있는 토론

경북도는 24일 원자력 및 수소 관련 기업들의 당면 현안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원자력·수소 기업육성 미트-업 데이’를 환동해지역 본부에서 개최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등 원자력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자력산업이 제도 약함에 따라 ㈜유투엔지 등 10개 도내 원자력 기업, ㈜이너센서 등 8개 수소 전문기업 및 경북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들이 경험하는 규제와 정책적 애로사항과 기술개발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먼저 그동안 원자력 기술 확보와 자

립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도내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및 원전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등을 설명하고 오는 2025년 원자력 분야 기술혁신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는 원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신아이디어 등 12개 기업을 선정해 기술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부터 원전산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도내·외 기업 역량에 따른 기업을 선정해 연속·체계적인 지원으로 경북 원전산업을 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해 온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 현황과 산업부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된 ㈜핵스 및 ㈜이너센서의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해 경북도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참가 기업의 관심을 모았다.

경북도는 수소 전주기 산업 육성과 수소 제품·부품 인증 및 평가를 위해 연료전지 인증센터를 구축했고 지난해부터 예비 수소 전문기업 지원을 통해 초기 수소 산업의 지역 내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는 미래의 원자력 및 수소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관련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와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양규희 경제부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원자력 및 수소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기업이 직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보문단지 재도약 위한 경쟁력 강화 힘쓴다

### 경북문화관광공공, 투자 활성화 도모 입주업체 설문조사 실시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보문관광단지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보문단지 내 114개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문단지 재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보문관광단지, 신규 민간투자 유치 위한 발판 마련

지난 1975년 국내 1호 관광단지로서 지정된 보문관광단지는 국내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 잡으며 국내외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았지만 최근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춰 신규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보문관광단지가

2025년 APEC 경주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와 그 이후 지속적인 관광단지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공사는 이번 설문조사로 입주업체들이 직면한 문제와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입주업체들이 APEC 개최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안할 수 있어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일 사장은 “보문관광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입주업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PEC 경주 개최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보문관광단지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 의성군 “홍준표 시장 ‘플랜B’ 는 어불성설... 경북도민 우롱 멈춰라”

### TK신공항 항공물류 ㅼ 이전에 군신공항이전지위·단체·주민 국토부·대구시 향해 규탄 집회 공동합의문 불이행 처사 '본'

의성군신공항이전지위위원회를 비롯한 의성군 내 40여개 사회단체와 600여명의 주민들은 비안면센터에서 민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앞서 국토부와 대구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집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와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구시의 '플랜B' 등과 같은 극단적인 발언을 일삼는 홍준표 시장과 이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면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는 국토부를 상대로 '공동합의문 이행'을 촉구했다.

박정대 위원장은 “대구시는 군부대와 여객·화물터미널 등 신공항 내 각종



시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알짜배기는 다 군위로 가져가라고 한다”면서 “이처럼 형평성을 잃은 행정을 막아가내로 펼쳐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말하니 누가 믿겠나”라며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홍 시장이 '항공물류는 참고다. 항공MRO는 기술이 없어 해외로 나간다'는 발언과 관련해 “유치

과정에서 작성한 공동합의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고 의성주민은 소음만 고스란히 받으라고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이 주장한 '플랜B'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터미널 동축 배치를 오는 10월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위군 우보면에 이전)에 대해서도 “신공항 건설 일

정에 차질이 빚어진 원인은 사업을 책임질 업체를 구하지 못한 대구시의 책임이다”라며 “홍시장은 책임의 소재를 두고 공동합의문 이행 촉구 등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의성군을 향해 '뱀법'이라는 율가미를 씌우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 같은 막무가내식 주

장으로 대구·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가로막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박수친 경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말하며 “군위군이 다시 경북 군위로 돌아올 수 없듯 공동합의문대로 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흥군 의성군 이장연합회장도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본인의 말이 곧 '법'이자 '정의'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라며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현재 화물터미널 관련해 빚어진 갈등에 대해 의성군민이 떠나 쓰고 억지를 부리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재만 비안면신공항지원대책위원장도 “신공항을 현재의 대구공항과 똑같은 판박이 공항으로 만들려는 것과 다름없기에 홍 시장이 그동안 즐기차게 주장한 경제물류공항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여기에 장단 맞춰 춤추는 꼴이니 과연

지방공항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있는지, 동네공항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원호 의성군 노인회장은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중요한 사업을 두고 국토부와 대구시가 제대로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양 기관은 의성군민들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신공항 건설에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는 규탄 집회 이후 국토부가 주관한 설명회로 이어져서 결국 설명회는 파행됐다.

주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의성군 화물터미널 배치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부실한 평가서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회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화물터미널은 협의 중”이라고 했으며 주민들은 “지금 뭐 하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 딤페이크·마약·온라인 도박, 호기심으로 절대 안 돼!

### 대구검찰청 경주지청·범방위원 학교폭력예방 등곳길 캠페인 펼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이하 범방)는 24일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들의 딤페이크, 마약, 도박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등곳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최명규 지청장과 최소연 부장검사, 박태일 범방 회장을 비롯한 위원과 시 관계자, 경주여자정보고 교사, 학생들이 참가해 등교생들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선물하며 학교폭력 없는 면학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최명규 지청장은 “학생들에게 검사가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등곳길에 선물하는 꽃 한 송이를 통해 교우들과 사

랑과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성장을 위한 문화를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정정한 교육 환경 조성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태일 범방 회장은 “학교폭력 예방 활동으로 매일 등곳길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오늘처럼 검찰, 지자체, 학교가 함께 해 등교생들에게 꽃 한 송이씩을 나누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캠페인 다양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페인을 마친 후 학생회 임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최명규 경주지청 검사가 '학교폭력·딤페이크·마약·도박·온라인 범죄'를 주제로 '청소년 범죄예방 특강'을 실시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 '장애인 편의시설' 빠진 경주파크골프 제1구장

### 말뚝 박힌 장애인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은 계단으로만 이용 가능 민원인 “市的 명백한 차별 행위”

최근 파크골프가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주파크골프 제1구장의 장애인 주차구역과 화장실이 장애인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경북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4일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편의시설 개선에 관한 건의 요청을 받고 조사한 결과 골프장 장애인 주차장 진입구에는 말뚝이 박혀 있어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실은 가건물 형태로 진입로에 계단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 당사자는 “파크골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지만 경주시의 단일한 행정과 무책임한 민원 대응으로 파크골프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됐다”고 말하며 “이는 경주시의 명



백한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경주시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박귀룡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전국 최고의 환경을 갖춘 구장이라는 평가에 걸맞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경규기자seo01141@hanmail.net

## 직장공장새마을운동안동시협,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봉사활동

### 구설발경로당 어르신 대상 실시 매일 1회 회원 재능기부로 진행

직장공장새마을운동안동시협의회는 지난 21일 안동시 북후면 신전1리 구설발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봉사활동은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경로당 어르신들의 안부도 살피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1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된다.

촬영한 사진은 현장에서 바로 보정과 인화작업을 거친 뒤 액자에 넣어 어르신들께 전달하고 있다. 이진호 협의회장은 “고운 웃을 차려 입고 장수사진을 찍으러 오신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을 보니 기쁘다”라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미등록경로당 어

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김성일 면장은 “우리 북후면의 미등록경로당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 주신 직장공장새마을운동안동시협의회에 감사사를 표하며 어르신들이 장수사진을 찍으시고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오명수기자oms727@nate.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70604-중-326호

#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http://www.kangnamh.co.kr)

# 경주 '황남동 120호분' 중간성과 보고회 개최

순장자·피장자 치아 분석 결과 장신구 기종별 특징·의미 발표 발굴 조사·출토유물 보존 공유 주검관에서 대나무 발견 '주목'



경주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그간 진행된 '경주 황남동 120호분' 조사연구 중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에서 금동관을 비롯한 장신구와 순장자의 치아 출토로 주목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황남동 120호분의 조사성과 및 금동관, 금동신발의 보존처리 경과 발표에 이어 봉토 및 석재 분석, 출토 목재 분석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가 끝나면 한국 고고학회 회장인 이성주 경북대 교수와 국립경주박물관 김대환 학예연구사의 진행으로 짧은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에는 순장자(15세 전후)와

피장자(3세 전후)의 치아에 대한 분석과 각종 장신구의 기종별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또 삼강유리구슬, 가슴장식, 팔찌, 곡옥 등 각종 유리유물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와 출토 유물 분석 등에 대한 보고회가 열린다. 발표 후에는 김용성 한빛문화재연구원 단장과 김재열 국가유산진흥원 연구원의 진행으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와 토론이 모두 끝나면 강봉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과 이성주 교수, 김용성 단장의 총평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15세 전후의 여성 피장자와 3세 순장자의 치아 분석 내용과 무덤의 주검관 피장자 아래에서 대나무가 발견된 점 등이 주목된다.

통상 돌무지덧널무덤에서는 나무관 안에 시신을 넣은 나무관을 안치했지만 이번 분석에서 아래에서부터 밤나무-대나무-유기물층(120-2호분), 졸참나무-대나무-유기물층(120호분)이 순서대로 확인됐으며 향후 신라 장제(葬制)를 연구하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매장주체부와 호석에 사용된 석재는 덕동호 상류의 시부거리마을-하류지역에 이르는 북천에서 공급됐다. 또 봉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모래는 경주 일대 여러 화학성분의 화강암질 풍화토(산모래)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신라왕경사업의 성과를 시민 및 학계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관련 조사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 "좋아하는 일 하길 응원합니다"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내달 6일까지 김동욱 작가展

김동욱 작가가 'Running Bird'를 메인으로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스페이스Ⅱ에서 24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선인장 시리즈', '달리는 새' 등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개인전은 선인장 시리즈, 달리는 새를 주제로 관점의 다각화와 다양성의 존중을 표현했다. 또한 전시공간 지원프로젝트 '공유'를 통해 전시공간과 작품세계의 공유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기획했다. 특히 작업 방식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다양한 소재

와 심플 그리고 단어에 작가의 의미를 담아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큰 의미를 나타내게 표현했다.

김동욱 작가는 "작업물들을 저마다의 관점으로 자유롭게 해석하시거나 의미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하나의 색감, 완전한 조형적 소재로 즐기시면 좋겠다"라며 "저의 작품을 통해 타인에게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전시공간 지원 프로젝트 '공유'는 (재)경주문화재단에서 시민들에게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있는 지역예술인에게 전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손동현 기자dohg031@naver.com

# 市, 지역 기업체 임직원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가져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강사 초빙 지방소멸-기업 상호작용 관련 설명



경주시는 24일 인구 위기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박민주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강사를 초빙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인구변화로 인한 기업 대응 방안과 지방소멸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펼쳐졌다. 특히 일·가정의 양립과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 등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인식개선에 대

해 심도 있게 알아봤다. 경주시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다음달 미혼 남녀 및 신혼부부, 무산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맞춤형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교육에 앞서 경주시저출생대책시민운동본부에서 저출생 정책

홍보와 극복 의지를 다지는 '소중하 아이, 행복한 가족, 함께하는 경주 캠페인'을 가졌다. 이상길 상공회의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경주

상공회의소도 지역 사회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워라밸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이 필수"라고 밝혔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 경주시보건소, 9주간 방송댄스 교실 운영

체력 향상·체중 감량에 도움

경주시보건소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활기찬 삶을 위한 방송댄스 교실을 운영한다.

방송댄스 교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변화를 겪는 50세 이상 20명이 참여하며 9주 동안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된다. 50세 이상 여성들은 자녀가 성장하

고 독립하면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체성 혼란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또 신체적 변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우울증에 영향을 미쳐 수면 문제, 체중 변화, 에너지 감소 등이 발생한다.

방송댄스는 신체 전반의 근육을 사용하여 체력 향상,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신나는 음악과 춤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준다.

방송댄스 교실 사전·사후로 우울증 선별검사(PHQ-9) 및 체성분 검사도 실시한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 에밀레종 소리로 제12회 신라소리축제 개막

27~29일 경주 첨성대 일원 개최

세계 최고의 종소리를 자랑하는 성덕대왕신종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12회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주 첨성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현존하는 세계의 종 가운데 최고의 소리와 아름다운 모양을 갖춘 '성덕대왕신종' (일명 에밀레종)의 가치와 정신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해마다 가을, 전년과도 경주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 행사는 '에밀레종 소리, 세계와 함께 미래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체험·공연을 통해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축하하는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에밀레 국악·소리 한마당,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등 동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가

행사 첫날 오후 5시에 열리는 에밀레전 개막식에서는 주낙영 시장과 이동협 시의회 의장,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 BBS대구불교방송 사장 영송 스님, 류완하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에밀레전 개막을 축하하고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어 박서진, 홍순지, 경성구 락부 등이 국악과 가요, 댄스가 어우러진 에밀레 축하공연을 선보인다.

행사 둘째 날인 오는 28일 오후 5시부터는 미스트롯 이수연, 경주 신라고취대, 국악관현악단이 '에밀레 국악한마당'을 펼친다.

29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에밀레소리 한마당에서는 '뉴진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가 무대에 올라 신나는 DJ파티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서경규기자seoul1411@hanmail.net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 어린이보호구역 내

#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 미국 시장에 '대구 식품 우수성' 알린다

홍 시장, LA 한인축제 공식 초청  
30일 메타·PNP 본사서 협력 논의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 일행은 미국 현지 시장 개척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6박 8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구시 대표단의 이번 일정은 알렉스 차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이 '제51회 LA 한인축제' 개막식에 홍준표 시장을 공식 초청하면서 추진됐다.

LA 한인축제는 미주 한인사회의 최대 축제이며 올해 51회를 맞이했고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 시 대표단은 오는 26일 LA 한인축제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대구시 최초로 운영하는 대구식품(D-푸드) 공동 홍보관에 참가해 미국 시장에 대구 식품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27일 미주 지역 기업 진출 지원과 국제협력 강화의 역할을 할 LA 대

구사무소 개소식에도 참석한다.

또한 대구 미래 번영과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오는 30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빅테크기업 Meta(메타)와 PNP(플러그앤플레이) 본사를 방문해 협력을 시찰하고 고위급 임원과의 면담을 통해 협력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LA 한인축제는 우리나라 여러 지자체의 특산품들을 현지에 소개하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등 문화 홍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장으로서의 역할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홍보관 운영을 통해 주요 대구식품(D-푸드)과 주요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새롭게 소개되는 LA 대구사무소를 통해 앞으로 대구와 관련한 많은 콘텐츠를 전 세계인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AI와 ABB산업 등 대구시의 미래 신산업과 관련해 미국의 선두 기업들과 폭넓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 대구 미래 50년 핵심법률안 통과 위해 '합심'

국립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 정책현안·내년 국비사업 논의  
TK신공항 개정안·낙동강 특별법 협조 요청해 적극 지원 약속 받아

대구시는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대구시 주요 정책현안과 2025년도 국비사업'을 논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안 등 대구 미래 50년 핵심법률안을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특별히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대식 대구시당 위원장,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예결위원으로는 임종득 의원, 조지연 의원,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대구시에서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행정·경제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도 예타면제 등 정책 현안과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2025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다. 먼저 "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주호영 부의장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토교통부 계류 중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금년 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법안에는 전역 국가재정사업인 가덕도신공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재원조

달 특례 신설과 민·군 공항 통합시공 및 토지 조기보상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특별법' 제정안 또한 지난 10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환경노동위 계류 중으로 대구시의 30년 숙원이며 1300만 영남권 주민들의 식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에 제정이 절실하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안동댐을 취수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안동댐 주변 등 취수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이 밖에도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예타면제 및 기본계획 용역비(90억원) 등 지원, 신공항 철도(110억원), 도시철도 4호선(210억원) 등 교통인프라 사업,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시설 구축·전기차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등 미래산업 관련 신규사업(30억원)에 대

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에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차질 없는 신공항 건설, 물 문제 해결 등 대구시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당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3일간 국회에서 권역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날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했다.

홍준표 시장은 "올 연말까지는 TK 100년 미래가 걸린 신공항 건설, 대구의 30년 숙원인 물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등 주요현안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숙원 해결을 위해 이익집단의 억지와 폐쇄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이다. 대구시가 흔들림 없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달성, 지역 장애인과 함께하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간평가

달성군은 24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중간평가회'를 개최했다.

군은 전국 8개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2024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다.

이날 중간평가회는 사업 참여 장애인 및 보호자, 최재훈 군수,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 이용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사업 개선·보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참석해 사업의 우수성과 효율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보냈다.

최재훈 군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자기주도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종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 군위 농촌지도사회, 군부대 유치 적극 지지

군입원 40여명 참석 결의 다져  
회원역량 강화교육, 특강 진행  
지역 핵심 리더 자질 확충 집중

한국농촌지도자 군위군연합회는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회원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기 전 군입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군부대 군위군 유치에 적극 앞장서기로 다짐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농촌지도사회 군입원은 대구 군부대 유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면서 군위군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적극 지지를 하기로 했다.

이날 농촌지도사회는 군부대 군위군 유치 결의 후 한국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과제사업의 일환으로 회원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농업우수와 가우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교육아카데미 특강을 받으며 회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핵심 리더로 자질도 확충했다.

김진열 군수는 "농촌지도사회가 지역농업의 핵심리더로서 농업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역량 강화교육이 자양분이 돼 농업단체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대구, 일본 육상 관계자와 네트워크 구축

2026 세계마스터즈 육상대회 조직위, 日 대회 운영 견학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는 해외 읍저버 프로그램을 통해 교토에서 열리는 전일본마스터즈 육상경기선수권 대회를 참관하고 일본 육상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대회는 일본마스터즈육상경기연합(JMA) 주최로 열리며 교토에서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마스터즈 육상인 1만1000여명(선수, 심판, 임원, 동반자 등 포함)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직위는 대외협력부장 등 4명과 대구시체육회 직원 2명을 대회에 파견해 육상선진국 일본의 대회 운영을 벤치마킹하고 경기시설을 견학했다.

특히 대회 둘째 날에는 JMA 회장(나카지마 세이지)과의 간담회를 통해

조직위와 JMA 상호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선수단의 대거 참가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 대구시 대회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것을 다짐했다.

이에 더해 안도 미치오 기타큐슈 육상연맹 부회장, 미야사코 유지 후쿠오카 마스터즈 육상경기 연맹 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 육상 관계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에 주력했다. 또한 대회에 참여하는 1만1000여명의 선수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6년 대구대회를 적극 알리는 홍보 활동을 실시했으며 홍보 리플릿 및 기념품 배부 등을 통해 일본 마스터즈 육상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진기훈 사무총장은 "대회 성공을 위해 마스터즈 육상 저변이 탄탄한 일본 선수단의 적극적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살국유사의 달교장 군위

# 대구광역시 군위군

## 파워풀 대구와 함께

###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전국 최고 '명품 봉화사과' 맛보러 오이소~

### 내달 4일~6일 백두대간수목원 할인장터·다채로운 체험 마련 지역 농가소득 증대 기여 '특독'

가을철을 맞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광장에서 농특산물 홍보 판매 행사가 열린다. '백두대간 봉화사과 홍보판매 이벤트'가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봉화군 춘양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는 농협 봉화군지부, 봉화농협, 물야농협, 춘양농협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봉화군·봉화군의회·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후원하며 봉화사과 브랜드 확산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은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다채로운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남태평양, 남미, 인도 등 세계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킥댄스 공연과 5인조 퓨전 국악 밴드, 3인조 버스킹 밴드



가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80명 대규모 공연단 '링컨' 댄스팀은 세계로 뻗어나갈 봉화사과의 이야기를 무대에 녹여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축하 공연 이후에는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과 껍질 길게 깔기, 사과 무게 맞추기 등의 흥미로운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사과 직거래 할인 장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봉화사과

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봉화사과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행사장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애플마켓', '애플홍보관', '애플체험관' 부스가 상시 운영된다.

애플마켓에서는 봉화사과를 직거래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애플홍보관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봉화사과를 소개하고 소셜 콘텐츠와 포토존을

통해 봉화사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애플체험관에서는 사과 음식 시식회, 사과 쿠키클래스, D.I.Y 만들기 체험, 사과 챌린지 이벤트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한편 26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봉자페스티벌 기간 동안 지역 농특산물 판매홍보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도라지, 고구마, 호박, 버섯, 잣, 조청, 떡, 다래청, 야생화, 공예품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2024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과 연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방문자 센터 입구 광장에서 진행되며 페스티벌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국 군수는 "백두대간 봉화사과 홍보판매 이벤트는 전국 최고 품질의 봉화사과를 널리 알리고 소비자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산물 홍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 영양, 눈·코·입이 즐거운 '능이축제' 초대

### 다음달 12일, 13일 수비면서 열려 축하공연·이벤트 게임 등 다채

영양군은 오는 10월 12일, 13일 이틀간 수비면 체육공원 일원에서 '2024 수비면 능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산물과 문화·관광자원을 주제로 마을 주관을 시행하는 능이축제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불리는 '능이버섯'을 산지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축제기간 동안 몸에도 좋고 향도 좋은 능이버섯 구매 외에도 축하공연, 영양만점 디제이, 이벤트게임, 맥주빨리마시기, 능이러면 나눔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방문객의 눈, 코, 입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올해 축제는 더 다양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마련했으며 꼭 방문하시어 능이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tae66611@naver.com

# 영주, 전통시장·원도심 상권 활성화 '앞장'

### 골목시장서 '가을맞이 행복전'

영주 골목시장(영주로 192번길 2 일원)에서는 25일, 26일 '고향시장 행복 어울림가을맞이 행복전' 행사가 열린다.

골목시장 상인회가 기획한 이번 행사는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전통시장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상인회는 행사 기간 골목시장 내 회원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영수증 합산) 금액이 3만5000원 이상인 고객에게 골목시장 내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권 1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고객은 구매 영수증을 골목시장 내 소무대에 설치된 교환 부스에 제시하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3만5000원 이상 합산 영수증을 지참하거나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동반 시 '감성 파우치' 만들기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원섭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 안동, 민선8기 하반기 7대 전략으로 시민 위한 시정 '속도'

###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 사업 추진 국가균형발전 모델도시 도약 '총력'

안동시가 민선8기 하반기를 이끌 7대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10월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도출한 7대 전략을 통해 시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한층 속도를 올린다.

1. 지방시대 3대 특구로 경제·문화·교육 분야 새로운 기회 창출

안동시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3대 특구(기회, 교육, 문화)를 석권한 최초의 도시이다. 3대 특구를 통해 굴지의 바이오백신 기업들이 5500억여원을 안동에 투자하고 교육혁신으로 교육·일자리·정주를 연결해 지속 성장도시의 기틀을 구축한다. 또한 전 세계를 사로잡는 K-문화의 중심도시로 성장해 1천만 관광객 시대를 개막한다.

2. 기회의 땅 안동, 백신·헬프·몰 3대 산업으로 대도약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과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내며 글로벌 바이오백신, 헬프 산업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시·군을 연계한 대규모 물산업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안동 100년을 책임질 블루골드산업

으로 발전시킨다.

3. 낙동강 물길 관광·스포츠 벨리 조성

호반의 도시 안동시는 낙동강 물길을 따라 관광·스포츠 벨리를 조성해 주야간 매력적인 도시로 조성한다. 안동호는 마리나리조트와 수상레포츠센터 등을 조성하고 웰빙고 일원은 수상공원장 조성하고 대형미디어아트 공연이 연출돼 호반 전체가 안동만이 줄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을 선사한다. 시가지지나는 낙동강 양안에는 '안동맨발로 롤러랄라'와 실개천, 초화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여가공간을 제공한다.

4. 안동형 청계천 사업과 정원도시 사업으로 그린시티 안동 조성

옛 물길을 건강하고 하천으로 복원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 자이아파트 인근 안기천은 '안동형 청계천'으로 환골탈태해 시민의 녹색여가공간으로 조성한다.

도시 전체가 꽃과 숲으로 둘러싸인 정원도시가 된다. 중앙선1942안동역, 낙동공원 등에 도시숲을 조성해 녹색 도시 안동을 지향한다. 또한 금소생태공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새롭게 조성되고 도산에는 이육사광양생태공원 조성 추진한다.

5.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행복한 도시

용상동에는 경북 인구증가 거점시설인 공공산후조리원과 은하수랜드를 신축한다. 결혼·출산·보육 등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는 '경북사랑마루 저출생 ALL-CARE센터'도 건립한다. 혁신적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효과를 낸 안동형일자리사업은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고령층 증가에 중요성을 더해가는 노인 일자리는 사업을 확대하고 홀몸노인 동행 프로그램, 경로당 운영비용 지원 확대·경로당 회화활동비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6. 살고 싶은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내년 800명까지 확대한다. 농기계 임대·배출서비스 사업도 해마다 이용건수가 급상승하는 만큼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해 나간다. 내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 분소를 구축하고 영농대행사업도 추진한다.

농산물도매시장도 시설을 확충해 경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빅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과수농가 전역에 스마트정보 시스템을 보급 및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법인을 구성해 소득증진과 농촌복지가 어우러지는 주주형 공동 영농 방식의 혁신적인 농업시스템을 도입하는 디지털혁신농업타운 공모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7. 경북북부권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원도심 구축

안동 원도심은 경북북부권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구축된다. 중앙선1942안동역을 가족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타운으로 탈바꿈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한다. 중앙선시장은 왔니겨안동일맛을 보고·먹고·즐기는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시장으로 육성하고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왔니겨투어 확대, 신·구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으로 관광객으로 붐비는 전통시장을 만든다. 옥정동 한옥마을은 워케이션과 체류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며 즐겁고 매력적인 문화 특화공간을 창출한다.

권기창 시장은 "앞으로의 안동은 바이오 첨단산업, 3대 특구 등 국경과제를 선도하는 지방시대의 신산업 테스트베드이자 대한민국 성장판으로 역할하며 국가균형발전의 모델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영수 기자 oms727@nate.com

# 청송 여성농업인 화합의 장 '명랑운동회' 성료

청송군은 '제3회 (사)한국여성농업인 청송군연합회 명랑운동회'가 지난 20일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여성농업인 청송군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각 읍·면 회원과 가족, 내빈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명랑운동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웃음 넘치는 화합한마당으로 마무리됐다. 또한 한

여성 연합회 이사 및 8개 읍·면 회장들이 모은 '저출생 극복 기부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상희 회장은 "오늘 하루만큼은 영농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경희 군수는 "한여농은 설립 이후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라고 전했다. 조영국 기자 wdr1211@hanmail.net



#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약타운 건설

###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춘 전술적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 구미, 20·30 취업자↑... 청년정책 효과 '톡톡'

### 시, 주거 지원 확대·여성 창업 등 청년친화도시 조성 위해 '총력' 25~39세 男 일자리 유턴 '눈길'

구미시의 청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 타지역 이동 분석 결과 구미시의 취업 연령대(25~39세) 청년 인구가 130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반한 청년 남성들의 일자리 유턴 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이는 지난해 전 연령층에서 구미 이탈현상이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 남성의 인구 유턴을 신호탄으로 구미시는 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청년여성정책기확단을 가동하며 주거 지원 확대,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청년을 위한 정책 체제 풀(FULL) 가동  
구미시는 이달 중 청년유출방지 중

합대책 TF단을 운영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TF단은 각 부서와 협력해 기존 정책을 청년 인구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 TF단은 부시장이 주재하던 청년여성정책기획단을 격상한 형태로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구미시는 청년 활동 거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미역에는 청년 거점공간이 조성 중이며 문화로에는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가 들어선다. 지난 4월에는 금오시장 내 '청년상상마루'가 문을 열어 현재 12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고민 없는 구미살이를 위한 주거 분야 지원 확대  
시는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해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청년들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약 1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80만원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도권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 구미 정착 주거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전입률을 높이고 강동지역 원룸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전망이다.

■ 청년 여성의 창업을 위한 안전 사다리 마련  
청년 여성 인구 확보를 위해 창업 지원사업을 재정비한다.

기존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여성 창업을 특화한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금오시장 일대에서는 공방, 음악다방 등 예술 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 지원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청년창업 지역 정착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 청년의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활기 충전  
시는 청년의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키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을 활용한 구미영 에너지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지역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 21일 구미러닝크루는 GRC 프로젝트를 개최했으며 오는 28일에는 인동청년협의회가 인동로데오 청년거리축제를 연다. 10월 2일에는 금오공대에서 제2회 구미시 청년의 날 행사 구미영 페스타가 개최된다.

청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키 위해 청년축제기획단 구피디(구미영 Festa Director)가 참여해 행사에 의미를 더한다.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지역 내 4개 대학 신입 학생회장을 제3기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 신규 위촉했으며 청년정책참여단을 통한 지역 사회 참여 창구도 개방하고 있다.

김장호 시장은 "청년 인구는 구미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구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청년친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문기자ub0104@hanmail.net



## 칠곡서 시작된 장난감 기부 전국 확산 '훈훈'

### 郡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 선행에 타지역도 아프리카 기부 동참

칠곡에서 불려일으킨 장난감 기부 바람이 들불처럼 라오스에 이어 아프리카까지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주민들로부터 기부받은 장난감 600여점을 비롯해 의류와 신발 등을 라오스 농사 마을에 전달했다. 10대 청소년들은 추억이 담긴 장난감을 내놓았고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이 애지중지 아꼈던 장난감을 기부했다.

칠곡군은 물론 서울과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장난감 기부에 동참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난감 기부와 함께 포장과 세척 봉사에도 주민들의 두 손을 걷고 나섰다. 북삼교 이세진 교사와 학생 6명은 지난 22일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을 찾아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은 장난감을 전달하고 인체에 해가 없는 곡물 발효 알

코일로 장난감을 세척했다.

새마을재단은 장난감이 현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배편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장난감 전달과 사용법을 교육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칠곡군에서 보낸 장난감이 농사 마을 아이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새마을재단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도 장난감을 보낼 계획이다.

칠곡군의 선한 영향력으로 예천 등 경북의 다른 장난감도서관에서도 장난감을 기부받아 아프리카에 보낸다.

칠곡군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 오는 10월에도 장난감 400여점과 의류, 신발 등을 보낼 계획이다.

김명선 도서관장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 기부 운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홍달 기자song081700@naver.com

### 수업 마치고 같이 책 읽자 김천 율곡도서관, 내달 28일까지 초등 틈새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김천시립 율곡도서관은 지난 19일부터 초등 저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독서 토론, 직업 탐구 등 총 8개 강의를 개설하고 '초등 틈새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해 오는 11월 28일까지 총 10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율곡도서관에서는 학교를 마치고 학원 가기 전까지 시간이나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학생들이 틈새 시간을 도서관에서 책 연계 활동을 통해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 틈새 독서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2025년부터 운영 예정이었으나 내년도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파악, 수요 조사를 통한 운영 규모 조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이순영 도서관장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부모들에게는 휴식, 자녀들에게는 독서 흥미 유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고령, 향속가치 모델 '천년건축 시범마을' 첫 삽



### 2027년까지 사업비 230억 투입 임대주택 70호·부대 시설 조성

고령군은 지난 23일 다산면 벌지리 63번지(구 벌지초등학교) 일원에서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남철 군수, 이철호 군의회 의장, 노성한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 내 기관·사회단체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인구정책과장의 사업설명, 기념사 및 축사, 기공 세례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경북도는 인구감소로 쇠퇴하는 지역의 위기 앞에서 경북도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하회마을처럼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향속적 가치의 도시 모델 구축을 제안해 시범사업으로 8개 시·군을 선정하고 동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알리는 첫 삽을 뜨게 됐다.

고령군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주거 단지를 조성해 도시 인재·청년들이 찾아오는 지방시대 전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거듭나고자 총사업비 230억원을 들여 면적 2만5370㎡ 부지에 임대주택 25동 70호(공동주택 8동 44호, 단독주택 17동 26호), 커뮤니티센터, 테라피 농장, 체육시설, 돌봄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은 이번달 공사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고령군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더불어 농업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계획인 청년농촌 보금자리조성사업을 연계해 복합주거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경북도의 유산과 문화가 반영된 새로운 주거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철 군수는 "오늘 기공식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북도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년·귀농인들에게 양질의 주거 여건을 지원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함께하는 청년 정착의 성공 사례로 순환 발전시켜 경북도의 대표 주거모델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 상주 '도리와 수니' 카툰 이모티콘 무료배포

### 2024 세계모자축제 방문 유도

상주시는 24일부터 공식 마스코트 캐릭터 '도리와 수니'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모티콘은 '2024 상주세계모자축제'를 홍보하는 도리와 수니'를 중심으로 '경천섬 수니', '감 잡은 도리' 등 16종으로 제작됐다. 특히 감정 표현과 동작, 문구를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상주시의 '도리와 수니'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상주시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통해 상주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친근하게 부각하고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에 대한 전 국민의 인지도를 높여 축제와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는

카카오톡 '상주시청' 채널 구독자 및 신규 추가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2만 5000명에게 제공되며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아이비투어**  
**대표 김재욱**

경주시 용강동 1533  
에이치타워 204호  
☎ 0507-1374-7755

**강산렌탈**  
**대표 최성훈**

경주시 천북면 동산덕산길 5  
☎ 054-776-9310

**마호기획광고**  
**대표 이재희**

☎ 010-3857-1111



# 청도, 달콤+유쾌한 축제로 올 가을 풍성하게

반시·세계코미디아트축제  
내달 11~13일 동시에 개최  
반시 직거래·유명인 공연 등  
볼·즐길거리 다채롭게 준비

청도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4 청도반시축제를와 2024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청도군 화양읍 정려로 1846)에서 함께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청도반시가 열리는 10월에 열린 청도반시축제가 올해에는 '주홍빛 청도 식후(9)경'이라는 주제로 새롭게 관람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축제장에는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청도힐링가든과 반시카페존이 조성된다. 반시카페존은 청도군민과 동행하는 모든 고객에게 카페의 음료 전 메뉴를 10% 상시 할인하는 '군민 할인 정책' 참여 업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힐링가든 외에도 축제장 곳곳마다 예쁜 정원과 파라솔이 배치돼 카페로 유명한 청도군의 매력을 더욱 빛낼 예정이다.

반시엑스포에는 반시품평회에 출품한 우수한 품질의 청도반시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고 청도 우리꽃연구회에

서 전시한 야생화가 전하는 색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반시마트에는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건강하고 맛있는 반시를 합리적인 가격에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다.

청도반시 플레이존에서는 해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황금반시를 찾아와와 새로운 놀이시설인 청도반시 클라이밍 등 자녀와 부모가 한 곳에서 즐기고 쉴 수 있는 가족전용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가을 하늘을 수놓은 감물염색 거리를 거닐며 감물염색, 감잎차 다도 체험, 인간반시 자판기 등 청도반시를 활용한 풍성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청도반시와 청도 농특산물을 활용한 이색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반시푸드존은 축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미식경험과 청도의 특별한 맛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고장 청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새마을 도시락, 새마을 환경살리기 홍보관 등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새마을 홍보존도 특별기획으로 조성된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해 행복한 우리동네를 소개하는 '청도행복타운'과 우리동네 숨은 재능꾼을 소개하는 '전국청도사랑'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청도의 예술인들이 우수한 기량을 뽐내며 만들어가는 무대 '슈퍼스타 청

도' 등 주민들의 열정으로 가득찬 축제로 청도반시축제가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경상도 사투리 경연대회, 이색 작사작곡 경연대회 등 신선하고 재미있는 이색경연대회가 함께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큰 재미와 웃음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은 '행복특별시 코미디 1번지'라는 주제로 올해에도 풍성한 재미와 볼거리로 축제장을 단장한다. 축제기간 3일 동안 야외공연장과 상설무대에서는 해외 초청공연으로 도쿄올림픽 개막식 출연 등 일본 최대 코미디 엔터테인먼트 '요시모토 스페셜' 무대와 국내 초청공연으로 코미디 마인크 '뽕뽕이', 세상 신기한 쇼를 다 보여주는 'SHOW MIX', 별문 퍼포먼스 '매직유랑단'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실내극장에는 빠지지 않은 '김민형의 Fun한 매직쇼', 관객참여형 애드립 연극 '김민기·홍순화의 투깝쇼'가 공연된다. 실내극장 공연 예약은 현재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 홈페이지 '청도코아페'를 통해 모집 중에 있다.

또한 올해 축제에는 개릴라 거리공연으로 키다리 아저씨의 '풍선 아트쇼', 임호군 마술사의 '매직 아트쇼', 엘키즈스타의 '버블아트쇼' 등이 웃음을 배달하러 축제장 곳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10월 11일 저녁 7시 개막식에는 대만, 프랑스 등 세계 비보이 경연대회 출전 및 수상자 'JUST ONE'이 펼쳐는 미디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김병만의 불정객', 2023 미스터트롯2 본 '안성훈'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12일에는 반시愛 불독 재즈콘서트와, 윗웃사·코미디 빅리그 출신 개그맨들이 무쳐 만든 최고의 개그 퍼포먼스 쇼 '살-짝 바뀐 졸탄쇼', 2023 불타는 트롯맨 4위 '김중연'의 멋진 트로트 무대가 선보인다.

13일에는 축제장 입구부터 청도의 자랑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4호 청도 차산농악의 퍼레이드 공연도 예정돼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돋울 전망이다.

저녁 6시에는 청도의 예술인들이 꾸미는 창작음악극 '다함께 잘 살아보세', '트롯신사 장민호'와 '트롯바비 홍지운' 그리고 미스트롯 TOP9 '곽지은'이 펼쳐는 신나는 공연을 끝으로 축제의 폐막식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김하수 군수는 "2024 청도반시축제와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예년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청도를 방문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달콤한 청도반시와 웃음이 가득한 순간들을 꼭 경험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 포항, 이상기후 대비 최신 농업 전략 공유

경북도 농촌지도자 연찬회 개최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홍보 진행

포항시는 지난 23일 한국농촌지도자 경북도연합회 대의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 농촌지도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지도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이상기후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최신 농업 기술을 적용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전국 1만 5000여명의 농촌지도자회원이 참가하는 한국농촌지도자 전국대회의 행사 운영 상황을 소개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이강덕 시장은 "경북 농업의 선두에서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이번 연찬회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었길 바란다"며 "경북 최초로 포항에서 개최되는 농촌지도자 전국대회에 많은 참여를 당부하며 포항시도 차질없는 대회 운영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hg0811@naver.com



# 울진군 '청년주도 한마음 어울마당' 성료

청년발전 유공자 표창수여 진행  
청년문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울진군은 지난 21일 제2회 울진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와 더불어 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자 '청년주도 한마음 어울마당'을 울진군 청년연합회와 청년정책협의체 주관으로 개최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며 울진군도 청년문제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화합을 이루기 위한 장으로서 청년들의 주도하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행사는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시작으로 손병복 군수, 박

형수 국회의원, 김재준 도의원, 김정희 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기념행사장 밖에서는 경일대 평생교육팀, 한동해산염연구원과 울진군 여러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부스를 마련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열어 한층 생기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손병복 군수는 "올해,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청년들이 살기 좋은 울진을 만들기 위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고 이에 필요한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하며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김성주 기자ksj09102@naver.com

# 영천, 안전 전문가 '한자리'... 축제운영 계획 점검 꼼꼼히

부시장 주제 안전관리실무위 열어  
보현산별빛축제·문화예술제 등  
전 분야 관련 심도있는 논의 진행

영천시는 지난 23일 김진현 부시장 주재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4회 영천 청년의 날 기념행사', '제50회 영천문화예술제',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소방서, 경찰서, 한전 영천지사, 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안전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유형별 안전대책, 비상시 조치계획, 교통통제 및 주차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전문적인 입장에서 안



전관리 분야 전반에 대해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진현 부시장은 "가을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축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빈틈없는

축제 준비를 통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축제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4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는 오는 28일 영천강변공원 일원에서, 제50

회 영천문화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영천강변공원에서 열린다. 그리고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 경북상인연합회

### 회장 정 동 식

경주시 원화로 291

☎ 054-771-3344

## 한국대중음악박물관

### 부관장 도 인 숙

경주시 엑스포로 9

☎ 054-776-5502

## 운영선 조리명인의 평양갈비

경주시 원효로 105번길 10

☎ 054-774-5445



### ‘도시 품격 UP’ 구미, 옥외광고디자인 시상

101개 작품 중 21개 우수작 선정  
성인부 김재돈씨 ‘차나무’ 대상

구미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전시관에서 ‘2024 구미시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시는 옥외광고 공모전에서 101개 작품 중 21개 우수작을 선정, 대상은 성인부 창작광고물 부문 김재돈씨의 ‘차나무’가 뽑혔다.

이번 옥외광고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접수된 총 101작품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성인부 창작광고물 16점, 대학생부 디자인·설계 16점, 초등생부 그림 및 모형 69점이 출

품됐다.

작품 심사는 옥외광고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진행했으며 독창성과 실효성을 기준으로 우수작 21점이 선정됐다.

△성인부 대상은 한국광고 김재돈씨의 ‘차나무’ △대학생부 금상은 경운대학교 강교현·김동현 학생의 ‘산동식당’ △초등생부 금상은 양포초등학교 김태운 학생의 ‘등대가 보이는 식당’이 수상했다.

장재덕 시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구미에 어울리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발굴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했다.

박외분 기자ub0104@hanmail.net

## 영주, 농·축협과 손잡고 기부문화 확산 ‘앞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MOU  
지방재정 확충·경제 활기 도모  
농특산물 홍보 등 새 판로 모색

영주시는 24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영주시지부장 박창수), 영주농협(조합장 남정순), 풍기농협(조합장 이인찬), 안성농협(조합장 손기을), 풍기인삼농협(조합장 권현준), 영주축협(조합장 서병국)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영주시와 농·축협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사항에 함께 대응해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영주시와 농·축협은 고



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동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도농 상생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사업을 발굴·추진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과 공급에 지역 농·축협이 적극 협력함으로써 기부자

들에게 더 큰 만족을 제공하고 우수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기회를 마련할 구상이다.

박남서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다 함께 힘을 모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기부문화를 더욱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농·축협과의 협력 아래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기부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중대재해 ‘ZERO’... 한수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최우선

안전보건 경영방침 노사 선포식  
법규 준수 등 5가지 주요 활동 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23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모든 종사자들의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방침 노사 공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수원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사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규 준수 및 적극적인 인적·물적 자원 투자 △구성원의 참여와 협의 기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의

무 등 5가지 주요 안전보건경영활동을 담았다.

한수원 노사는 이번 ‘안전보건 경영방침 노사 공동 선포식’을 계기로 앞으로 안전보건활동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수원은 이날 선포식에 이어 전사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노사가 깊이 논의하고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위원회도 개최했다.

황주호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중대재해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자”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예천군, 농기계 전복사고 감지 시스템 구축

승용식 농기계에 기울기센서 설치

예천군은 최근 농기계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업소 농기계에 전복사고 감지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예천군은 지난해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솔루션’ 사업으로 선정됐다.

농기계는 우리 농업의 중요한 도구지만 사용 부주의나 외부 위험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전복 사고는 농민의 생명과 직결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군은 우선 농기계임대사업소 승용식 농기계 70여대에 기울기센서가 탑재된 단말기를 설치했다. 단말기는 실시간으로 관제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복사고를 감지할 수 있다.

김기정 홍보소통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만족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시스템의 사업효과, 주민 만족도, 사고 오탐 등 전체적인 성과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시스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청도군 지보협, 복지박람회 준비 ‘만전’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청도군 장애인복지관 다목적실에서 복지박람회 참여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청도군 복지박람회는 군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교류 및 종사자들의 자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18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청도읍 내 새마을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복지박람회는 20여개 사회복지 관련 기관·시설·단체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홍보

부스, 먹거리 부스, 플리마켓과 주민이 참여하는 어울림 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제1회 복지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송근진 민간위원장이 진행했으며 참여기관 실무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근진 민간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복지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 경주교육청,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경주교육지원청은 교직원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교육지원청 전교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전문강사의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대처요령,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심장정지

시 환자가 보이는 여러 반응과 대처요령에 대해 알게 됐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대훈 교육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해마다 모든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2025 APEC 정상회의

## 경주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경북 종합 일간지  
**경상투데이**  
운영위원회

# 현대와 전통을 잇는 '대구 무형유산' 널리~

예술로 대구·대구무형유산연합 '니강 내강: 무형유산 행사' 성료  
예술 분야별 다양한 공연 '인기'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 '2024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 대구'(이하 예술로 대구) 선정 기관인 (사)대구무형유산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파견 예술인들과 함께 지난 18일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현대와 전통을 잇는 공연과 체험을 펼치며 성황리에 대구의 무형유산을 소개하고 알렸다.

연합회는 대구의 고유한 무형유산을 전승·보존·발전시켜 그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문예진흥원 '예술로 대구' 사업을 통해 연합회에 파견된 전문 예술인(△정호재(연극) △김성경(음악) △김조은(시각예술) △박경빈(음악) △이은주(시각예술))은 지난 5월부터 전시관 홍보 및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파견 예술인들의 연출과 사회, 홍보로 진행된 이번 '니강 내강: 무형유산' 행사는 '달: 마중 다 다르다'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가 서로의 영감이 되며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김조은 작家的 'Silent Flow'



(2021) 작품이 무대 배경과 홍보물로 환경을 조성하고 현대 행위예술가 백백이가 관객을 오가며 사이를 좁혔다. 대구무형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KIMMO(김모), TOMMSON(탐손)의 '마중'이 무대를 채웠다. 분야별 예술인이 준비한 공연은 각각 독립성을 띠면서도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도록 구성돼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날피복춤(윤종곤 보유자)과 달성하빈들소리(손봉희 보유자)가 펼쳐졌고 박물관 강당에서는 대구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정정미 전승교육사)와 가곡(우장희 보유

자) 무대가 열렸다. 문화사랑방에서는 모필장(이인훈 보유자, 이석현 전승교육사)과 함께 하는 붓 만들기 체험, 국가무형유산 소목장(엄태조 보유자, 엄동환 이수자)의 전통 도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조기 신청 마감되는 등 인기리에 운영됐다. 전연호 연합회 이사장은 "예술로 대구' 파견 예술인들과 함께한 이번 행사를 통해 현대와 전통의 간극을 이었다. 대구의 다양한 무형유산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현대와 전통이 서로 영감을 줘 채워진 풍성한 볼거리로 방문

하신 모든 분의 기억 속에 행복한 추억 연휴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니강 내강: 무형유산' 프로그램도 누구나 무료로 관람·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대구시통합예약시스템(yeyak.daegu.go.kr)에서 체험 예약(대구무형유산전승교육관)으로 가능하며 잔여분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예술로 대구' 사업과 관련한 예술 협업 활동 프로젝트는 대구예술인지원센터(artistcenter.or.kr) 누리집과 온라인 플랫폼 SNS(@daegu\_as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윤오세가연구소 유정 정운숙의 수요문화칼럼 - 풍류의 정신 사군자



조맹견, 수선도, 천진예술박물관.

## 명(明) 식물 속 사군자, 문인의 관조(10)

화조화의 위치가 송대 자리를 확고히 하게 된다. 표현 기법이 구묵(鉤勒)과 물골(沒骨)을 사용해 사생에서 창의적인 화법으로 전개됐다. 서구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식물의 사생(寫生)과 사실 표현에서 때, 난, 국, 족의 생태와 어울려 정원 조성의 심미안을 제공했다. 화조화의 화권(花卷)에서 서예의 예서(隸), 초서(草)의 필력이

식물의 잎과 꽃의 표현에 담겨있다. 사대부의 지적 교양과 심정의 고아함을 느낄 수 있다. 명대 이전 시대의 화조화를 살펴보면 현대의 시선에서 고대 그림들을 통해 유람하고 풍류의 소소한 길게 느끼게 한다.



야합화, 상해박물관.



식물(화원).

# 버스킹의 계절 가을... 인디밴드 투파이브윈과 '감성 충전'



28일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발라드·일앤비·팝 장르 총망라  
대구예술발전소는 가을을 맞이해 오는 28일 오후 3시 대구예술발전소 1층 야외 테크에서 버스킹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대구예술발전소 '가을맞이 버스킹 공연'은 투파이브윈(251) 밴드의 단독 공연으로 진행된다.

투파이브윈(251) 밴드는 흥성 보컬의 매력을 보여주는 감성적인 발라드를 비롯해 일앤비, 팝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밴드다. 작곡의 요소 중 하나로 대중들이 좋아하는 사운드인 2-5-1 진행을 들려준다는 의미를 지닌 투파이브윈(251)은 사랑, 이별, 후회, 인내, 노력과 같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관객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공연은 대구예술발전소를 방문하는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버스킹 공연과 함께 대구예술발전소 내 다양한 전시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관람 신청은 대구예술발전소 홈페이지(<https://www.daeguartfactory.kr>)와 SNS 계정(<https://instagram.com/artfactorydgsucha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청송문화관광재단, 음악극 '소현실록' 개최

소현공원·진보문화체육센터 27·30일 오후 7시 총 2회 공연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7일과 30일 오후 7시 청송읍 소재 소현공원과 진보문화체육센터에서 총 2회에 걸쳐 소현왕후 스토리텔링 음악극 '소현실록'을 선보인다.

지나해 청송군 개군 60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소현왕후-청송애가(愛歌)'가 관객의 큰 호응을 받는데 이어 올해는 전곡을 새롭게 창작해 더욱 풍성한 공연을 준비했다. 특히 챔버오케

스트라와 전통국악, 정가, 실력 있는 솔리스트들과의 협연을 통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소현실록'은 청송을 관향으로 둔 세종대왕의 비 소현왕후의 삶을 풀이한 스토리텔링 음악극으로 조선의 국모로서 소현왕후의 삶과 시아버지 태종의 왕권강화를 위해 친정인 청송심씨 가문이 억울한 누명에 의해 몰락되는 과정, 세종대왕과의 애틋한 사랑은

그린다. 공연은 총 4부 구성으로 △1부-궁(宮)은 세자빈이었던 소현이 중전이 되는 과정 △2부-비(悲)는 친정인 청송 심씨 가문이 몰락되는 과정 △3부-치(治)는 왕후로서 내명부를 다스리는 모습 △4부-태평성대(太平聖代)는 여러 고난을 이겨낸 소현왕후의 삶을 다채로운 연출과 음악으로 풀어낸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 디카+시의 조합 '사진에서 시를 읽다'

30일 오후 7시 안동시립도서관 지역작가 문영숙 시인 북콘서트

안동시립도서관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옹부도서관(1층 3강의실)에서 '지역작가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지역작가와와의 만남' 행사는 '디카 시'라는 새로운 시 장르에 도전해 '의자들'이라는 시집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온 지역작가 문영숙 시인의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디카 시'는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와 시(詩)를 합친 단어로 스마트폰을 통해 일상의 삶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문화가 됨에 따라 새롭게 탄생한 시 장르며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자연 및 사물에서 포착한 영상을 시(詩)라는 언어예술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인에게 최적화된 시적 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북콘서트는 문영숙 시인과 신간 시집 '의자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



으로 디카 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독자들이 직접 디카 시를 써 보는 실습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자주 찍는 현대인이 접근하기 쉬운 분야이므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금수강산면체육회, 선수단 발대식



성주군 금수강산면체육회는 지난 23일 체육회 임원 및 선수 등 60여명이 참석, 제52회 성주군민체육대회 금수강산면 선수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오는 10월 5일 개최될 제52회 성주군민체육대회를 대비해 열린 이날 발대식은 군의원 및 체육회 이사들이 참석해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종목별 팀장 및 선수 소개와 훈연일정 논의, 화합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여상훈 체육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연습하는 선수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노력한만큼 군민체육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f151@daum.net

상주, 청년 친화적 지역 만들기



상주시는 지난 21일 실내체육관(신관)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2회째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상주로운협동조합 주관으로 △청춘피크닉(도란도란) △청춘 나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타로, 퍼스널컬러 등 체험부스가 함께 운영됐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과 함께 저출생 극복 및 군부대 유치기원 캠페인도 함께 진행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고두환 미래정책실장은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지역과 청년이, 청년과 청년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프라 구축 등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2@naver.com

## 동국대 WISE 조리외식경영학전공, 빛난 성과

실무형 인재 양성 최우선 목표  
국내 최고 조리외식경영 교육  
김선아 학생 ‘SBS 물려줄결심’  
116명 지원자 중 최종 6인 올라



사회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 외식 시장 및 외식 창업 수요의 구조적 성장에 발맞춰 식품·외식산업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신설된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조리외식경영학전공은 실무형 인재 양성을 최우선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전공 이론 지식과 더불어 정규 교육과정과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실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호텔·외식 산업의 글로벌

전문 조리 기술인 및 식품 외식 산업의 전문 경영인, 도전적·창의적 역량을 갖춘 실무형 외식산업 창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식품 외식 산업 및 호텔 산업 분야의 경험을 축적한 우수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의

조리외식경영 교육 과정을 갖춰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노포의 대를 이어 맛을 지켜갈 후계자를 찾는 프로그램인 ‘SBS 물려줄결심’의 116명 지원자 중 최종 6인에 22학년 김선아

학생이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더 다양한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다수의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경력을 쌓아온 김영준 교수와 프랑스에서 제과제빵 유학을 하고 경험을 쌓은 김은지 교수를 최근 임용해 외식프랜차이즈와 제과제빵 실무형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영중 학과장은 “기존 외식 산업, 호텔 조리 및 식음료 전공 교수진과 더불어 프랜차이즈와 제과제빵 전공 교수진 임용으로 조리외식경영학 전공의 분야별 교수진 구성이 완성됐다. 차별화된 교육 과정과 교수진을 통해 동국대에서 현장 중심형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풍기인삼농협, 충북인삼농협과 품앗이 ‘훈훈’

영주시는 풍기인삼농협과 충북인삼농협이 24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각각 500만원씩 상호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기부는 두 지역의 인삼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날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상호 기부 약정식에는 권헌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 소진호 충북인삼농협 조합장

이 참석했다.

권헌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두 농협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서로의 지역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두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남서 시장은 “기부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뜻깊게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 김천 대덕면, 노후 가스레인지 교체 ‘눈길’



김천시 대덕면은 지난 23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동네 안전하세쥬’ 사업으로 노후화된 가스레인지 교체를 진행했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선정된 5가구는 과일 센서가 없어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화구 과열 방지 안심 센서가 부착된 모델로 바뀌는 데 나섰다. 이날 가

스레인지 교체에는 대덕면 출신 김기종 현 미래가스(구 대산가스) 대표가 재능기부로 힘을 보탰다.

손종일 면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안동,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마무리’



안동시는 지난 23일 지역 기관장과 사회단체 남녀지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안동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안동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를 슬로건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

한 유공자표창 △결의문낭독 △기념퍼포먼스 △안동시장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축하공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족센터, 가정폭력예방센터 등에서 준비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상담과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오명수 기자homs7227@nate.com

## 동 정

인문학기행 어린 왕자 원정대 촬영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25일 오후 4시 30분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인문학기행 어린 왕자 원정대 촬영에 참석한다.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권기창 안동시장은 25일 오전 9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2024년 정기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축제 평가·준비상황 보고회



박남서 영주시장은 25일 오후 3시 강당에서 개최되는 2024영주시원축제 평가보고&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 준비상황 보고회에 참석한다.

농협 영천지부 쌀 소비 촉진 MOU



최기문 영천시장은 25일 오전 9시 시장실에서 개최되는 농협 영천시지부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해 협약을 체결한다.

9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



최재훈 달성군수는 9월 25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9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에 참석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봉화, 청소년의 문화가 있는 날



봉화군은 지난 23일 청소년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파일럿’을 상영했다.

‘청소년의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공연 및 영화 상영으로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영화상영은 석포청년회의 주관으로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박현국 군수는 “석포면 청소년 및 주민들이 문화적 경험을 함께 나누고 지역 사회의 연대감을 느끼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 한잔 차에 安民을 노래하고...

12:30

**여는마당**  
국악실내악단 '가람'

13:00 - 14:30

**추모식**  
육법공양 - 종사영반  
추모사 - 추사 - 인사말  
헌다-헌악-헌화-헌향

11:00 - 16:00

**총담예술팀 및 들차회**  
다례시연(14:00)  
국악공연(14:30-15:30)  
차(茶) 시음 - 차도구, 차전시  
다식 전시 및 화전놀이

12:30 -

**문화체험장**  
떡메치기  
문화재도양 떡만들기  
금관만들기  
신라의복체험

총담재(忠談齋)는? 향가 찬가(贊歌)와 안민가를 지은 신라 경덕왕때의 고승 총담스님을 기리기 위해 지역 문화단체와 전국 차(茶)인들이 모여 진행되는 전국적인 차문화제입니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10. 05.(토) 오후 1시  
침성대 잔디광장

주최: **삼천리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주관: 매다원 | 울산남도매점협회  
후원: 경주시 | 불국사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경주국립공원사무소 | (재)보덕학회 | 경주문화재단위원회 | 쌍계재단 | (주)상복명교원



김천시 구성면은 지난 23일 구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날 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싱크대 교체 △방충망 설치 △생활 집기류 정리 및 청소를 지원했다.

심재혁 위원장은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주민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해정 면장은 "바쁜 와중에도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작은 손길들이 모여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손잡아 주민 한분 한분 보살펴 드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대가면 주민자치위, 다도교실 진행



성주군 대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24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다도교실을 지난 23일 개강했다. 이번 다도교실은 오는 10월까지 청천서원에서 총 5회 진행된다.

한옥의 맛과 다도가 잘 어울려 한 폭의 그림 같은 곳에서의 수업은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서원 내 야외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수강생은 "매일 커피 마시는 게 일상생활처럼 된 요즘 이렇게 운치가 있는 곳에서의 이번 수업은 우리 전통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명진 면장은 "경북도 유형문화재인 청천서원에서 문화와 예술, 역사 모두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러한 뜻깊은 곳에서 차를 배우시면서 우리 대가면 교정의 문화유적을 아끼고 사랑하는 계기도 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 안동반가(주) 대표, 취약계층 건강 살뜰히 챙긴다

흙도라지·안동생강 진액 기탁  
"면역력 키워 환절기 잘 보내길"

이태속 농업회사법인 안동반가(주) 대표는 지난 23일 지역 내 취약계층의 면역력 증진을 위해 스틱형 흙도라지 진액과 안동생강 진액 총 186박스(시가 1000만원 상당)를 안동시에 전달했다.

기부받은 물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노인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업회사법인 안동반가(주)는 안동시 북후면에 소재하며 생강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제조·유통하고 있다. 전통에서 가져온 맛을 잇는 생강



전문 기업으로 선조들의 지혜와 전문성을 합쳐 안동 전통의 맛과 멋을 되살리고자 힘쓰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이자 사회적기업, 농

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기업으로서 안동지역 특색을 살리면서도 전통과 현대의 적절한 접목으로 안동만의 특별한 가치를 창조하고자 노력하

며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태속 대표는 "점점 선선해지는 날씨에 취약계층이 진액스티크를 통해 면역력을 키워 별 탈 없이 환절기를 보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안동의 전통과 색을 전국으로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기창 시장은 "취약계층이 환절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힘과 사랑을 전해주시는 이태속 농업회사법인 안동반가(주) 대표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전해주신 마음은 온기를 담아 소외계층에 잘 전달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 사랑의 빵 나눔봉사단, 완산동에 재능기부

사랑의 빵 나눔봉사단은 지난 23일 영천시 완산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빵' 30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 받은 빵은 회원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직접 만들었으며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백순혜 단장은 "회원들이 정성으로 구워낸 빵이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근택 동장은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잘 전달돼 앞으로도 나눔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랑의 빵 나눔봉사단은 해마다 회원들과 함께 빵을 직접 만들어 사회 취약계층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있다.

정식열 기자jsy92200@hanmail.net



### 상주 계림동, 희망 나눔 세탁기 지원 '훈훈'



상주시 계림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23일 계림동 지역 내 세탁기가 없거나 노후 및 고장으로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3가구)을 대상으로 희망 나눔 세탁기 3대(15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

계림동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세탁기가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시행 후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세탁기 지원사업을 지난 2022년 12월 9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채인기 동장은 "생활필수가전 세탁기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가 불편한 생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세대를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 온정면 지보협, 홀몸 어르신에 김치 전달



울진군 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한울원자력본부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월 마음담은 김치 반찬 나눔사업'을 실시했다.

김치 반찬 나눔은 홀로 계신 어르신과 복지 사각지대 46가구를 대상으로 온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된 지역기관·단체 회원들이 방문, 간편조리 식품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손승우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마음담은 김치반찬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온정면이 더욱 온정 가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인수 공공위원장은 "마음담은 김치반찬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 안동,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호응



안동시는 지난 21일 열린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 '커피에감! 힐링피크닉(3차)'에 남녀 각 15명이 참가해 매칭률 40%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커피 체험클래스 및 로테이션 대화, 커피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안동시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3차)에는 총 30명 모집에 70여명의 인원이 신청했으며 세 번째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도 식지 않는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15쌍 중 6쌍이 매칭됐다. 시 관계자는 "오는 11월에는 마지막 차수인 4차 만남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 예천, 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교육



예천군은 24일 김학동 군수, 강영구 군의장, 예천군 어린이집 학부모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예천군 어린이집연합회 하반기 부모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예천군이 주최하고 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으며 육아로 지친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육아의 기쁨을 찾도록 돕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황인지 공경리더인 재계발전 대표가 강사로 나서 '행복한 부모, 마인드 리셋'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행사가 육아하는 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MY UNIVERSE GYEONGSAN

무엇보다 시민중심 행복경산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

# 눈과 입이 즐거운 가을축제 '봉화송이축제' 온다



내달 3-6일 내성천·송이산 일원, 체험·공연·연계 행사 등 24개 프로그램  
 매일 2회 송이 채취 무료체험, 이색 '오색오미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  
 개관 출신 9인의 화려한 코미디 토크쇼로 웃음 넘치는 화합의 장 열어  
 안전 최우선 확보·바가지 요금 근절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대표 축제 '우뚝'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하는 '봉화송이축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봉화읍 내성천 및 지역 내 송이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체험, 공연, 전시 부대, 연계 행사 등 24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전례의 환경에서 자란 봉화송이를 알리고 정경 봉화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힘썼다. 지역 주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만들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고품격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고!

봉화송이축제 대표 주제 체험인 송이 채취체험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회차마다 5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 하루 두 차례 무료로 진행된다.

축제 참가자들은 직접 송이를 채취하며 자연의 선물인 송이를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봉화송이와 한약우에 관련된 퀴즈를 통해 숲속도시 봉화를 알아보는 '도전! 송이 골든벨'은 오는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내성천 특설무대 앞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또한 축제 기간 중 진행되는 게릴라 이벤트 '송이 한송이 챌린지'는 뽑기, 딱지치기 등 남녀노소가 쉽게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으로 축제장 서편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경품이 준비돼 있다. 이 외에 송이 가요한마당, 목재문화축제 등 7개의 체험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송이판매장터와 송이 한약우 식당 등 다양한 먹거리들도 판매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품질 좋은 등급별 송이를 구매할 수 있는 송이 마켓, 안동

봉화축협과 봉화한약우작목회에서 주관하는 한약우 홍보관 및 판매 마켓을 비롯해 봉화군의 우수 농특산품을 직접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 먹거리 마켓, 송이와 한약우의 화려한 조합으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송이 한약우 셀프 식당도 운영해 봉화 송이와 한약우를 활용한 미식 경험을 즐길 수 있다.

◆ 오색오미 비빔밥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의 향연

개막 첫날인 오는 10월 3일 오후 12시 30분 내성천 특설무대 앞 잔디광장에서는 '제3회 오색오미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봉화군 우리음식 연구회 주관으로 봉화송이와 한약우를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하고 신선한 나물을 재료로 만든 비빔밥을 무료로 나눠주며 관광객과 지역민들이 하나로 화합하는 자리를 만든다.

축제 동안 다채로운 공연행사도 이어진다. 축제 첫날인 3일 오후 7시부터는 송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염원을 담은 개막선언과 함께 최우진, 채희, 김소유, 정미애, 진혜성이 출연해 멋진 공연을 선보이며 송이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릴 예정이다.

뮤지컬 '몽룡전', 봉화 사이닝 스타 콘서트 등 지역 문화 예술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도 마려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코미디 토크쇼 '복 까놓고 말해보소 시즌2'도 열린다.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던 유명 개그맨 총 9인의 화끈하고 열정 넘치는 토크쇼가 펼쳐져 즐거움과 함께 지역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 있다.

▲ 봉화송이버섯

축제 마지막 날인 오는 10월 6일에는 내성천 특설무대에서 지역주민, 관광객들과 함께 제28회 봉화송이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공연행사가 진행된다.

황인옥, 송하예, 경서예지, 한강, 배아현이 출연하며 올해 축제의 끝맺음과 내년에 개최될 축제에 대한 기대를 담아 가을 밤하늘을 밝히는 불꽃쇼를 끝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 넘쳐나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 풍성한 연계행사

'숲속도시 봉화' 브랜드에 알맞은 목재 친화도시 및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목재문화축제를 함께 열어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봉화송이축제의 대표적인 연계문화행사인 '청량문화제'에서는 고유의 전통민속놀이를 재연한다. 또 봉화군민과 관광객이 화합할 수 있는 삼계줄다리기, 한시백일장, 보부상 공연, 서예 전시 및 체험, 우리음식만들기, 전통민속놀이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역의 많은 문화단체들이 준비한 전시 및 체험행사를 즐겨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베트남 홍보관, 성이성문화제, 2024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등 다양한 전시, 문화, 체육 연계 행사도 열려 축

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계획이다.

◆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한 노력

올해 송이축제는 지역 사회 단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화합형 축제로 계획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업 중심형 축제에서 벗어나 체험형 축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예방중심 안전관리 강화로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구현을 목표로 철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련 유관기관과 연계 및 협력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가지 요금의 근절을 위해 가격 표시제를 추진하고 고객편의 및 친절, 위생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입점 자격 요건을 강화해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광 친화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현국 군수(봉화축제관광재단 이사장)는 "이번 송이축제는 송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섯 등 품질 좋은 우수 임산물도 많이 준비돼 있다"며 "가을문화 축제인 봉화송이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테마(청량문화제, 목재문화, 세계문화 등)의 체험, 전시관을 운영하니 가족, 친구와 좋은 추억 쌓아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송이판매장 모습.



지난해 봉화송이한약우축제 개막축하공연.

칼럼

### 쿠르스크 악몽의 전차전②(下)

임용한  
KJ인문경영연구원 대표



#### ◇ 돌파와 반격, 그리고 결말

독일군은 크루거의 중부집단군을 북부에서 만슈타인의 남부집단군을 남부에 배치했다. 작전 개념은 북쪽에서 해머로 내려쳐서 전선을 요동시키면 남부에서 돌출부의 뿌리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올라가는 개념이었다.

해머는 발터 모델의 제9군이, 가위는 호프의 제4기갑군과 쾨프의 작전집단군이 맡았다. 소련군의 진지는 대단히 잘 설계돼 있어서 그곳으로 돌입하는 것은 말 그대로 킬링존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었다. 게다가 독일군의 돌파부대는 강력하기했지만 돌파전면이 좁았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런 사정으로 양측 공군도 역대급 규모로 치열한 혈전을 벌였다. 쿠르스크 전투라면 흔히 전차전을 연상하지만 공중전도 살벌하게 벌어졌다. 땅 밑에서는 지뢰가 터지고 하늘에서는 폭탄이 측면에서는 포탄이 작열하는 가운데 전차와 병사들은 좁은 회랑을 따라 참호가 겹겹이 놓여 있는 다중방어진을 돌파해나가야 했다.

피를 토하며 목표지점에 도달해도 전선 뒤에는 소련이 비축해 둔 풍부한 예비대가 있었다. 이들의 반격은 거셌고 물러서지 않았다. 독일군의 기대와 달리 돌파를 해도 좌우 측면의 소련군이 추풍낙엽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결국 모든 전투는 모두가 재로 화하고 전투력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됐다.

양측의 승부는 경이로울 정도였다. 독일군은 보통 10배, 5배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전술의 정석을 깨고 요새화된 방어진지에 적보다 더 적은 병력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그럼에도 끝끝내 최초의 목표지점에 도달하긴 했지만 병력의 절반을 손실하고 전투력이 바닥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의 반격

을 버티내고 소모시켜서 양측의 전력이 다 같이 소진됐다.

남부전선에서는 약간은 다른 형태 혹은 복잡한 형태로 전투가 전개됐다. 만슈타인은 빛나는 전술 능력으로 공격과 방어를 좀 더 신중성 있게 해냈다. 호프의 4기갑군에 소속된 SS 부대는 악명만큼이나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한다.

전선이 좀 더 역동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양측이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양상은 변함이 없었다. 7월 12일 마침내 대규모 기갑전투가 벌어진다.

독일군 전차가 294대, 소련군 전차가 793여대였다. 양측에게는 죽을 때까지 싸워라 안되면 들이받아 자폭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기갑백병전이라고 별인 이 죽음의 대결은 결국 죽음의 대결로 끝났다.

90만의 독일군은 가공할 전투력을 보였다. 100만의 소련군은 무서운 투지를 보였다. 양측의 지휘관은 모두가 더 이상 남은 병력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전투가 끝났다.

쿠르스크 전투만 보면 승부는 무승부라고 할 수도 있고 독일이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독일의 좌절이자 전세 역전이었다. 쿠르스크 후방에 상성한 소련 집단군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들이 공세를 나선다.

결국 독일군은 전 전선에서 수세로 돌아서고 밀리게 된다. 지난 1943년 말 소련군은 우크라이나로 진입하게 되고 11월에 키이우(키예프)를 탈환했다.

쿠르스크는 독일의 실패로 끝났지만 그곳에서 싸운 지휘관과 병사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투지와 용기를 보여줬다. 그러나 어떤 찬사도 그들의 무모한 희생을 위로할 수는 없다.

뉴스

사설

### 저축공제 신설·청년지원법 제정

당정은 청년층의 취업 지원 대책을 위해 내년도 청년층 취업 지원 예산을 올해 1조 9689억원에서 2조 2922억원으로 약 16% 증액(3233억원) 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출시와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청년층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선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학생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장기 쉬었음 청년 발굴·회복 지원 △일하는 청년 일자리 안착 지원 △중소기업 청년 채용 촉진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취약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일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을 재학생 18만명, 졸업생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기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150만명의 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해 장기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도 1만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하는 청년들이 직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근로자 3300명이 참여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을 위한 특화훈련과 상담수당에 228억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250개소 대상 근무 환경 개선 비용 15억원을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참관참은 중소기업(3만개)', 각 부처 선정 강소기업 채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고 올해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로자 납입금(월 10~50만원)에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과 은행금리 우대(1~2%)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기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가칭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저희가 하는 격차 해소 정책도 결국은 청년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둔다"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학생들이 일찍부터 커리어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쉬고 있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 빠른 회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자립 준비, 가족 돌봄, 고립 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내년도 청년층 취업 지원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기고

### 실체 없는 코인 투자, 주식 투자는 사기

이선화  
성주경찰서 능동범죄수사팀장



다가 한참 후에야 그 실체가 없음을 깨닫고 나서 경찰서 문턱을 밟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의 수익률 제시 등 실재와 흡사한 투자 사이트, 유명인 합성 등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진 AI 기술은 점점 더 고차원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에는 여전히 각종 SNS, 대포폰, 대포계좌가 범행수단으로 사용되고 그 추적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방이 최선책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금융계와 통신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성주경찰서에서는 올해 허위의 코인과 회사를 사칭, 투자를 유도해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일당을 6

개월간 수사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투자의 입금은 잘나에 불과하지만 추측해 검거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됐고 범인은 검거했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회복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

세간에는 '1억원을 만들려면 2억원을 투자하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투자의 성공과 고수의 창출은 절대 남이 대신해주지 않는다.

코인과 주식을 통한 고수의 창출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그 실체가 없는 수단을 미끼로 한 사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소득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작금의 세태에서 코인과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 번 해볼까' 해서 리딩방에 가입하고 허위의 코인 구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경정부 <구내>1008	F A X (054)748-36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 양정로 25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새 희망  구미시대

 구미시

비수도권 유일  
반도체 특화단지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

기회의 땅, 구미로!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 실증센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 구미시, 국가산단 57만평 기회발전특구 지정

[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

유호 구미로인15190  
유아보육료 50% 감면  
14년 산출금률 50% 감면

14년 구미로인15190  
유아보육료 50% 감면  
14년 산출금률 50% 감면

